

韓國의 『荀子』 受容樣相에 對한 研究

申斗煥*

<目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한국의 순자에 대한 인식 |
| II. 순자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 IV. 결론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荀子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선비들에게 어떻게 수용 되었는가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순자는 제자백가 중 유가에 속한다. 조선에서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반박한 인물이란 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학자들은 그의 성악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그의 인성에 대한 관찰과 사유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학자들도 있었다.

순자가 언급한 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그의 경제사상은 조선 학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을 되고 있었다.

순자의 대표적인 학설인 禮사상에 대해서도 조선의 학자들은 성악설을 바탕으로 세운 예설이라고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수용하는 학자들은 그의 樂論과 더불어 禮敎에 대한 여러 언급들을 탁월한 것으로 판단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조선 선비들은 순자의 문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배우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저술에서 나타나는 현란한 비유와 상징 및 명료

* 安東大學校 漢文學科 / ilovestudent@hanmail.net

한 논리전개는 조선의 학자들을 감동시켰으며 그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아 익히는 학자들도 있었다. 조선 선비들은 배우는 학자들에게 순자를 필독서로 정해 읽기를 권장하였으며 또 서당의 학습요목에 순자가 들어 있기도 하였다.

한국의 유명한 유가학자들의 문집에는 순자의 학설을 거론한 것들이 무수히 발견된다. 약 500여 문집에서 순자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에 대해 비판과 찬양을 쏟아내고 있다.

이로 보면 순자의 위대한 사상이 한국의 유교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은은 “유가의 우아한 선비”라 했고, 허균은 “맹자 이후 유가의 일인자”라고 했으며, 농암은 “유가에 공이 큰 학자”라고 했다. 성호는 “전현들에게서 볼 수 없는 분별력의 소유자”라고 하였고 정조임금은 “유도를 행하여 富大하게 하는 경세가”라고 하였다. 최근까지 학자들이 순자를 연구한 논문만도 약 500여 편에 이르고 있다.

【주제어】 순자, 유가, 조선, 제자백가, 성악설, 禮, 경세치용

I. 문제의 제기

지구상에 잠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21세기 세계의 대혼란을 순자의 禮治사상으로 치유할 수는 없을까? 禮야 말로 국제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세계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전통문화의 붕괴, 극도의 이기주의와 각종범죄로 인한 무질서와 대혼란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때 이번 중국 산둥에서 유가학설을 주창한 순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는 것은 時宜適切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순자의 사상과 당대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산둥국제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맡은 주제는 ‘한국 선비들이 순자(BC 298-BC 238)의 학설을 수용한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戰國時代 혜성같이 나타난 儒家류의 破天荒. 맹자의 성선설에 반기를

들고 성악설을 주창한 유교 속에 이단이 된 문제야. 당대의 혼란을 禮樂으로서 치유하려 했던 경세가. 인간을 존중하고 실천유학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했던 위대한 사상가이자 인류의 참 스승이었던 순자!!

戰國時代의 諸子百家들 중에 濟濟多士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나 실천적인 儒家的 학자는 드물었다. 戰國時代 당대의 현실을 정시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일국의 정치를 가장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해가자는 戰國時代 사상가로는 먼저 荀子를 제일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신유학을 건국의 국시로 내 걸었던 유교 국가였다. 조선 500년은 주자학이 성대하게 펼쳐진 철학의 나라였다. 이렇게 성리학이 팽배하면서 주희가 신격화 되던 한국에서 순자는 그 설 자리가 너무나 협소했다. 더구나 성악설을 주장하여 맹자에게 맞선 인물이라는 이유로 조선에서는 유교의 이단으로 취급되고 그의 性惡說은 조선사회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학을 발전시키고 맹자를 바탕으로 유교를 비평적으로 받아들이며 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유학의 사상을 확대 高揚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그 성격이 유가에 공이 있는 제자백가 중의 한 사람으로 조선사회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순자의 사상은 유교경전의 뜻을 보완하는 補經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조선의 학자들은 순자를 필독서로 정해서 읽었고 학생들의 학습요목에 순자가 들어 있기도 하였다. 조선의 유명한 유가학자들의 문집에는 순자의 학설을 거론 한 것들이 무수히 발견된다. 순자의 위대한 사상이 조선의 유교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의 선현들이 남긴 약 500여 문집에서 언급되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순자에 대한 저서를 비롯한 연구 논문은 약 500여 편이 넘게 소개되고 있어, 그 제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순자는 한국에서 간과될 수 없는 존재였다.

본고에서는 유가류로 분류되는 순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그리고 그가 피력하고 있는 경세사상이 한국의 선비들에게는 어떻게 수용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순자의 텍스트는 (淸) 王先謙 撰, 沈嘯寰·王星賢 整理, 『荀子集解』, 中華書局, 2012, 3. 판본을 주로 삼는다.

II. 순자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1. 순자의 생애

순자는 戰國時代 趙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況인데, 당시 사람들이 서로 높여서 卿이라고 불렀다. 그 뒤에 漢나라 宣帝의 諱를 피하여 孫卿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荀子の 생애는 명확하지가 않다. 대략 BC 298?-BC 238?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그의 나이 50세에 비로소 제나라에 와서 학설을 유세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순자의 학설과 景潤 등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50세면 너무 늦은 나이이다. 五十은 十五의 착종으로 15세라는 설이 있다¹⁾.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국시대 수많은 국가들이 생존경쟁을 하며 역사 속에 명멸을 거듭하던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걸출한 영웅들과 제자백가들이 속출하였다. 난세의 영웅들은 부국강병에만 국력을 쏟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학문과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큰 힘을 쏟았다.

전국시대 중기 제나라의 威王(재위 기원전 378-343)과 宣王(재위 기원전 342-324)이 제나라 수도 臨淄의 13개 성문 가운데 서쪽 문인 稷門 아래 稷下學舍를 세우고, 뛰어난 학문과 재능을 가진 각지의 선비들을 초빙하여 학자들을 모두 대부에 준하는 예우와 록을 주었다. 이곳 출신의

1) (淸) 王先謙 撰, 沈嘯寰·王星賢 整理, 『荀子集解』, 中華書局, 2012.

대표적인 학자로는 孟子, 淳于髡, 鄒衍, 尹文, 環淵, 田駢, 慎到, 荀卿, 騶奭 등이 있다. 직하학사 전의 여러 사상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독자적인 경향을 띠었으나 직하라는 곳으로 한데 모이게 되어 의견 교류가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고대 중국의 사상들이 절충적이고 종합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齊나라 襄王 때에 이르자 전병과 그 무리들은 모두 죽고 순경이 가장 지위가 높은 스승이 되었다. 제나라에서는 여전히 열대부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였는데, 순경은 3차례나 직하의 祭酒가 되었다. 祭酒는 國學의 최고선임을 뜻하는 말이다. 鄉飲酒禮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존경을 받는 스승 중에 스승이었다. 순자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전국시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稷下學舍의 宗匠이 되었다.

순경이 제나라 사람의 모함을 받고 초나라로 가자 春申君은 그를 蘭陵舍수로 삼았다. 춘신군이 죽자 순경의 관직은 면직되었으나 그는 계속 蘭陵에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세상에 혼탁한 정치가 행해지는 것과, 나라를 망치는 혼미한 군주가 계속 왕위에 올라 대도를 따르지 않고 무당의 祈願에 미혹되고 길흉의 징조를 믿는 것과, 저속한 유자들이 작은 일에 연연해하는 것과, 더불어 莊周와 같은 무리들이 언변에 능하여 세속을 어지럽히는 것 등을 싫어한 순경은 유가, 묵가, 도가가 행한 성취와 실패를 고찰한 후 그것들을 차례로 정리하여 수만 자의 글자로 된 저서를 남기고 죽었다. 순자는 12편으로 이루어진 책을 저술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상당한 거질이었으나 다시 정리되어 32편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죽어서 蘭陵에 묻혔다. 蘭陵은 지금의 山東城 棗莊市 일대라고 한다.²⁾ 또 일설에는 山東 蒼山 西南 蘭陵鎮이라고도 한다³⁾.

2) 王先謙 撰, 沈嘯寰·王星賢 整理, 앞의 책.

3) 方勇·盛敏慧, 『荀子感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12.

순경의 제자였던 李斯는 후에 진나라로 들어가 재상이 되었다. 韓非子도 순자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다.⁴⁾ 순자에 대한 생애는 『史記』 卷 74, 「孟子荀卿列傳」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 전부이며 의외로 다른 기록에 전하는 것이 적다.

2. 순자의 학문적 경향

고려말 益齋 李齊賢(1287-1367)은 수자의 사승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荀子是 秦 子弓을 孔子와 동격으로 치켜세워 仲尼니 자궁이니 하였다. 唐나라 楊倞이 말하기를 ‘子弓은 仲弓이고, 그를 붙인 것은 그가 자기의 스승임을 드러낸 말이다.’고 하였다. 내가 상고하여 보건대, 荀卿은 孟子보다 뒤에 태어났고 中宮은 子思보다 먼저 태어났다. 맹자도 자사에게 직접 배우지 못하고 자사의 門人에게 受業하였는데 순경이 어떻게 中宮을 師事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자궁이라는 사람이 응당 따로 또 한 사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궁의 功德이 세상에 전하여지지 않았으니 과연 부자와 짝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그 제자인 순자가 주장한 性惡說 하나만 보더라도 그 淵源을 알 수 있거든, 하물며 다시 전수받은 사람이 詩書를 불태우고 선비를 생매장한 李斯였음에랴!⁵⁾

익재는 순자의 사승관계를 규명하며 그의 학문을 비판하였다. 자궁이 순자의 스승이었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가 부족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益齋 李齊賢의 제자로 元나라 과거에 장원급제 했던 牧隱 李穡(1328-1396)의 「有感」이란 시는 순자의 학설을 담고 있다.

李斯出荀況 이사가 순황에게서 나왔으니
豈非儒雅士 어찌 유가의 우아한 선비가 아니리오

4) 司馬遷, 『史記』 卷74, 「孟子荀卿列傳」. 참조.

5) 李齊賢, 『櫟翁稗說』, 後集 1. 참조.

相秦顯其君	진나라를 도와서 그 임금을 빛내었으니
道固在於此	도가 참으로 여기에 있다 하겠도다
竟起焚坑謀	마침내 분갱의 피를 내었으니
高談之弊耳	고담을 좋아하는 폐단이로다
其心非禽獸	그 마음이 금수가 아니어든
異好豈本志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달리함이 어찌 본심이라
先侏函丈間	많은 제자 모인 교단의 자리에서
搖唇勿容易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一字訓之非	한 글자 잘못된 가르침으로
流禍明在史	화를 끼친 것이 역사에 분명하게 있다네 ⁶⁾

순자는 유가의 우아한 선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순자의 가르침은 이사와 같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 또한 유가의 우아한 선비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순자의 제자인 李斯(?-BC 208)를 중심으로 순자의 학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李斯는 초나라 上蔡 출신으로 荀子에게 법가의 정치를 배웠다. 뒤에 呂不韋(?-BC 235)에게 발탁되어 秦始皇 때에는 재상이 되었고, 천하를 통일한 뒤 郡縣制 실시를 주장하였다. 秦나라 丞相 李斯는 후일에 秦始皇을 권하여 書籍을 불태우며, 유생을 잡아서 무절러 죽였다.

이 시에서도 焚書坑儒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송나라 蘇軾(1037-1101)이 荀卿 荀況論을 지어서 말하기를, “순경이 기발하고 높은 말하기를 좋아하여, ‘사람의 성품은 악하다. 천하를 요란하게 하는 자는 子思와 孟軻다’ 하는 등의 해괴한 의론을 하였으므로, 그 폐단으로서 그로부터 배운 李斯가 끝에 가서는 서적을 불사르는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시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것이 순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순자의 학문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성리학을 숭상했던 원나라의 영향을

6) 李穡, 『牧隱詩藁』 卷6, 詩, 「有感」.; 『東文選』 卷5, 五言古詩, 「有感」.

받아 순자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순자의 학문적 경향은 유교적이었다. 순자 스스로도 “학문하는 방법은 유교경전을 암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를 읽는 데서 끝이 난다”고 할 정도로 순자는 경전을 중시했다.

『순자』 전체를 볼 때 『시경』을 인용한 것이 84문장, 『역경』 인용이 2곳, 『서경』 인용이 15항목에 이른다. 그 외에도 공자의 말과 격언 등을 인용하여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은 『춘추』의 비판적 글쓰기 방법을 그대로 이은 것이라 하겠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유학이 사실상 경학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순자의 유학사에서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거의 모든 유가 경전의 전승이 순자와 크든 적든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리학이 지배하는 송나라 이래 『순자』는 철저히 부정당하였다.⁷⁾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주자가 스노비즘화 되면서 순자에 대한 비판은 더욱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에서 순자의 학문은 유교 속의 이단으로 분류되었다.

荀子は “孟子가 齊王을 세 번이나 보았어도 일을 말하지 않았으니, ‘나는 먼저 그 邪心を 치겠다.’고 말했다.” 이 구절은 순자가 맹자와 대립을 가지고 맹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순자는 성인에게 대항하는 문제구절로 인식되고 있었다. 순자의 학문은 性惡說을 주장했고 禮教를 강조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 溪谷 張維(1587-1638)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는 순자의 학문적 계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穀梁氏는 이름이 赤으로, 子夏(BC 507-BC 420)의 제자인데, 어떤 이는 그의 이름이 俶이고 字가 元始라고 주장한다. 그 학문은 荀子和 申公으로부터 蔡千秋와 江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번 전해져 漢나라에 이르렀는데, 宣帝가 이

7) [네이버 지식백과] 「순자[荀子] - 성왕이 다스리는 나라」(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2006.5.22, 휴머니스트.)

를 좋아한 나머지 마침내 세상에 성행하게 되었다.⁸⁾

이를 바탕으로 그의 學統을 보건대, 순자의 학문은 子夏 → 荀卿 → 申公 → 江翁 → 榮廣 → 蔡千秋로 이어진다.

순자는 맹자보다 약 100년 뒤에 태어나서 맹자를 비평하면서 유학을 바탕으로 학문을 전개한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의 제자들인 이사와 한 비자는 진나라를 문화적으로 이끌었다. 순자의 학문은 유가와 법가를 넘나들고 있었다.

農巖 金昌協(1651-1708)은 다음과 같이 순자를 인식하고 있었다.

맹자께서 돌아가신 뒤로 성인의 도가 전해지지 않고 이단의 설이 천하에 가득하여, 莊周, 列禦寇, 鄒衍, 慎到, 申不害, 韓非 같은 무리들이 각기 책을 써서 번론하며 그 황당하고 괴이하며 속임수 같은 술법을 한껏 부렸다. 이로부터 百家가 서로 뒤섞여 어지러워졌는데, 차츰 세월이 흘러 西方의 불교가 나오자 더욱 미묘하고 평활하여 천하가 온통 그리로 쓸리게 되었다. 그동안 공자를 높이고 인의를 존숭할 줄 알며 선왕의 법을 말하여 이단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뚝 선 사람으로는 楚나라의 荀卿, 漢나라의 董仲舒와 揚雄, 隋나라의 王通, 唐나라의 韓愈뿐이었다.⁹⁾

농암은 순자를 유학에 공이 큰 학자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위에서 언급한 五子를 세부적으로 비평하여 순자는 지나치게 압박하고 양옹

8) 張維, 『谿谷先生漫筆』 卷1, [漫筆], 「春秋三傳之來歷浮沈」, “穀梁氏名赤 子夏弟子 或謂名俶字元始 其學自孫卿申公至蔡千秋江翁 凡五傳至漢 宣帝好之 遂盛行於世 蓋公穀二傳 其始皆無文字 口相傳授 至漢時始著竹帛 而公羊最先行 漢儒引用春秋 皆公羊說也 穀梁次之 左氏最後行 自魏晉以後左氏獨盛行 而公穀浸微”

9) 『農巖別集』 卷4, 附錄3, [諸家撰述], 「五子粹言序」, “自夫孟氏沒 而聖人之道不傳 異端之說 充滿天下 如莊周列禦寇鄒衍慎到申不害韓非之徒 各著書騁辨 以極其荒唐詭怪狙詐之術 由是以降 百家交亂 駸駸至於西方之教出 則尤微妙宏闊 天下靡然歸之矣 于斯時也 能知宗孔氏崇仁義 誦說先王之法 而卓然不爲異言之所蔽惑者 於楚有荀卿 漢有董仲舒揚雄 隋有王通 唐有韓愈而已”

은 지나치게 나약하였으며, 동증서는 학문이 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역량은 儒道를 담당할 수 없었다고 비평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柳得恭(1748-1807)의 『燕臺錄』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다.

陳希濂의 字는 秉衡인데 浙江, 錢塘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저술한 『燕臺吟稿』 1권을 나에게 보여 주는데,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그중 荀子의 무덤을 지나다가 지은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荀卿生戰國	순경은 전국 시대에 태어나서
卓識過儀秦	탁월한 식견이 소진·장의를 앞섰다
性惡元通善	성악설은 본시 선과 통하고
言疵不害醇	언설은 순수함을 해되지 않았네
高墳終寂寞	우뚝한 무덤은 적막하기만 한데
古碣半沈淪	오래된 비석은 반이나 묻혀 있다
誰向千秋後	누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蘭陵吊守臣	蘭陵을 향해 순자를 조문하리 ¹⁰⁾

이 시에서 순자는 전국시대 사상가로서 식견이 높았으며 성악설은 결국 성선설과도 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순자의 학설은 순수했다고 하였다. 그의 순수한 학설이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시의 작자는 순자의 학설이 재조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에서 종합된 순자에 대한 학문적 경향은 유가의 우아한 선비로서 탁월한 식견이 있었으며 유교경전을 바탕으로 학문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의 학설은 순수했으며 인간을 존중하고 인의를 숭상하는 학문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는 유가, 묵가, 도가가 행한 성취와 실패를 고찰한 후 그것들을 차례로 정리하여 종합하였으며 그의 학설은 性惡說과 禮敎을 중시했으며 경세치용의 실천유학을 강조하였다.

10) 漢山州柳得恭惠甫撰, 『燕臺錄』, 「燕臺再遊錄」, “陳希濂字秉衡 浙江錢塘人 以其所著燕臺吟稿一卷示余 多佳作 其荀子墓一首云 荀卿生戰國 卓識過儀秦 性惡元通善 言疵不害醇 高墳終寂寞 古碣半沈淪 誰向千秋後 蘭陵吊守臣”

Ⅲ. 한국의 순자에 대한 인식

유가적 바탕위에 깨어있는 지성. 전국시대 유가 사상을 피력한 현란한 비유와 그 논리. 성악설을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휴머니스트. 예를 바탕으로 전국시대의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경세가. 전국시대의 이 위대한 학자가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을까?

순자는 통일신라 때부터 등장하여¹¹⁾ 고려 전기까지는 간헐적으로 등장되다가 고려 시대 후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인용되기에 이른다.

조선의 국시는 신유학이었다. 이후 朱熹(1130-1200)는 조선에서 스노비즘(snobbism)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맹사상이 더욱 공고하게 되고 순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순자는 맹자(BC 372-BC 289)를 비롯한 유가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주목되고 있었다. 그와 비교해서 단연코 순자의 성악설이 가장 큰 주류를 점하고 있다. 순자는 순자 자체의 사상으로 알려지기보다는 공자(BC 551-BC 479), 맹자 때문에 알려진 것이 더 많았다.

순자는 고려 때부터 문묘에 배향되고 있었다. 중국의 문묘에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유가에 공이 큰 학자들을 배향하면서 순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의 문묘는 중국의 배향 인물을 설정하면서 중국의 문묘를 토대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는 性惡說을 주장한 순자를 문묘에 배향하는 것은 문체가 있다고 적출해야 한다는 사론이 있기도 하였다.¹²⁾ 조선에서 유가를 헤치는 이단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순자의 유가를 통한 ‘부국강병론’은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

11) 崔致遠, 『桂苑筆耕集』 卷16, 疏, 二首, 「求化修諸道觀疏」 등에서 순자를 읽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12) 『國朝寶鑑』 卷45, 숙종조5. 참조.

고 있었다.

李奎報(1168-1241)는 「答全履之論文書」에서 “孟子는 孔子에 미치지 못하고, 荀子·揚子는 맹자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자 다음에는 공자와 똑같은 사람이 없이 홀로 맹자가 본받아 거의 공자에 가까웠고, 맹자 다음에는 맹자와 같은 사람이 없이 荀子·揚子가 孟子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후세에 혹은 孔·孟이라 하고, 혹은 軻·雄이니 荀·孟이니 하는 것은, 서로 본받아 거의 가까웠기 때문이다.”¹³⁾라고 하여 荀子の 학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許筠(1569-1618)은 荀子를 읽고 독후감을 남겼다. 許筠은 “荀卿이 老聃을 배척하여 ‘급힐 줄은 알았으나 펼 줄은 몰랐다.’ 하였고, 莊周를 배척하여 ‘하늘의 도에 가려서 인간은 알지 못했다.’ 하였는데, 그의 설이 매우 타당하다. 또 능히 王道를 높이고 霸道를 천시할 줄 알고, 공자를 높이고 이단을 배척할 줄 안 것으로는 맹자 이후 일인자이다.”¹⁴⁾라고 하여 순자를 유교적인 공헌자로 극찬하였다.

許筠은 순자의 단점을 파악하여 “오직 그의 천품이 거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함부로 도를 안다고 자처하고 曾子·子思·孟子를 제치고 곧바로 孔子의 전통을 직접 이으려고 하였으므로, 이론을 세우고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 諸儒와는 다르게 하느라 노력하였다. 孟子는 ‘사람의 천성이 착하다.’ 하였는데, 순경은 ‘사람의 천성이 악하다.’고 말하여, 맹자를 이기고자 하였으나 끝내 이길 수 없었다. 가령 순경이 순순히 자사·맹자의 전통을 지키고, 뛰어난 논설과 특이한 변론을 힘쓰지 않았더라면 ‘조그만 흠이 있다.’는 배척과 ‘택한 것이 정밀하지 못하고, 말이 상세

13)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26, 書, 「答全履之論文書」, “且孟子不及孔子 荀揚不及孟子 然孔子之後 無大類 孔子者而獨孟子效之而庶幾矣 孟子之後 無類孟子者 而荀揚近之 故後世或稱孔孟 或稱軻雄 荀孟者 以效之而庶幾故也”

14) 許筠, 『惺所覆瓿稿』 卷13, 文部十, 讀, 「荀子」, “荀卿斥老聃爲知訕仲 斥莊周爲蔽於天而不知人 其說甚是 又能知尊王而賤伯 知尊孔氏而黜異端 孟子後一人也.”

하지 않다.’는 韓愈의 비난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오직 거만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훌륭한 체하여 제멋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한번 전해지자 李斯와 韓非의 사상으로 변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¹⁵⁾”라고 하였다.

許筠은 순자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학문적인 검손이 부족하고 오만한 그의 학문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독후감은 순자가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순자는 맹자 이후 유가의 일인자였다. 순자의 잘못은 특이한 변론과 잘난 척하는 것이었다는 한유의 비방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성리학이 공고해 지던 조선의 시기에는 순자의 사상은 유교 속의 이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허균은 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星湖 李瀼(1681-1763)은 “司馬氏의 『居家雜儀』에 7세에 『孝經』과 『論語』를 배우고, 8세에 『尙書』를 익히며, 9세에 『春秋』와 여러 『史記』를 외고, 10세에 『詩經』과 『禮記』를 배우니, 이로부터는 『孟子』·『荀子』·『楊子』를 읽을 수 있고 諸子百家의 글도 널리 볼 수 있다.”¹⁶⁾라고 하였다. 星湖는 공부하는 차례를 정하면서 『荀子』를 읽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澤堂 李植(1584-1647)은 자손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을 나열하였다. 그 중에 과거공부를 할 때 “荀子和 韓非子和 揚雄의 저술 중에서 한 책으로 초록하여 수십 번 읽어라.”¹⁷⁾라고 하였다. 우리 조선의 학동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자주 발견되는 데, 그의 勸

-
- 15) 許筠, 『惺所覆頡稿』 卷13, 文部十, 讀, 「荀子」, “特以天資亢而闇妄以知道自處欲廢曾, 思, 孟子而直續夫子之傳. 故立言垂訓 務異於諸儒 孟子曰 人性善而卿曰 人性惡也 欲以勝之 而卒不可勝 使卿循循然守思軻之傳 不務爲高論異辨 則小疵之斥 擇不精語不詳之誚 奚自而至耶 唯其亢而闇 自用而自私 故一傳而爲李斯 韓非也 惜哉.”
- 16) 李瀼, 『星湖僊說』, 人事門, 「讀誦課程」, “司馬氏『居家雜儀』七歲誦孝經 論語 八歲誦尙書 九歲誦春秋及諸史 十歲誦詩禮 自是可以讀 孟荀楊子博觀群書.”
- 17)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14, 雜著, 「示兒孫等」, “荀韓楊中 抄一冊數十番讀”

學은 학문을 권장하기에 흡족했다 그만큼 순자의 문장에는 순수한 학문과 유가적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순자가 읽히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練藜室記述』에는 “乙酉年 監試에서 荀子の 말을 인용하여 높은 등수에 든 자가 있었다. 叅贊官 閔鎮遠이 아뢰기를, ‘四書疑에 유교 이외의 外家の 문자를 인용함은 크게 법도에 어긋나며 관계되는 바가 적은 일 이 아니오니, 법을 제정하여 엄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¹⁸⁾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면 조정에서는 순자를 배척하였고, 과거보려는 선비들은 순자를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조선의 비판

조선에서 순자의 성악설은 주자학의 승배로 인해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栗谷 李珣(1536-1584)도 순자에 대한 비평을 가했다. “荀子和 揚雄은 날날이 분산된 이가 각각 하나의 물에 있는 것만 보고 본체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순자는 “성이 악하다.” 하였고, 양옹은, “善惡이 섞였다.”는 설을 주장하였으며, 孟子는 다만 본체만 들고 기를 타는 설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告子를 굴복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不備한 것이요,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不明하니, 性和 氣를 둘로 하면 옳지 않다.” 하였으니, 지금 형의 소견은 다만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아니하여, 순자와 양옹에게 빠져 있습니다. 不明한 것보다는 차라리 불비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리는 보기 어려워서 一邊에 집착하는 것을 가장 꺼리는 것이니, 이 말을 보고도 오히려 합치하지 않는다면, 잠시 각각 아는 바를 높이고 다시 논변할 것 없이 공부를 더한 후에 다시 논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⁹⁾라고 하여 순자의 학설에 빠져 있

18) 『練藜室記述』, 별집, 제9권 「官職典故」, 과거II, <과거제도>.

19) 李珣, 『栗谷先生全書』 卷10, 書2, 「答成浩原」, “枯木有枯木之氣 死灰有死灰

는 제자를 교유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율곡은 제자가 순자의 성악설을 살핀 논의에 대해 순자를 비평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星湖 李瀾(1681-1763)은 “성이 좋하니 옳하니 한 것은 孟子和 荀子の 말이 있던 후로부터 사람들은 오히려 고개를 가웃거리며 의심스럽게 여겼다. 대저 맹자가, “性善을 말할 때는 말끝마다 반드시 堯舜을 일컬었다.” 하였으니, 이 한 구절은 是非를 판단할 수 있다. “湯武는 本性을 회복시켰다.”라는 말은 오히려 이 性이 盡善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기도록 하였고, “堯舜은 본성 그대로였다.”라는 말은 억지로 힘쓴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로 본다면 힘쓰지 않아도 선하게 된 까닭에 그 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있게 마련이고 땅에 떨어지자 곧 배고프게 된다. 이 배고픈 것은 人心에 저절로 있는 것이라 道心의 절제를 받지 않는 것인데 어찌 선하지 않음이 있겠는가?”²⁰⁾라고 하였다. 星湖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성선설을 긍정하며 순자의 성악설의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星湖는 『荀子』, 「王制」편을 두고 “水火는 氣는 있어도 생명은 없

之氣 天下安有有形無氣之物乎 只是既爲枯木死灰之氣 則非復生木活火之氣 生氣已斷 不能流行爾 以理之乘氣而言 則理之在枯木死灰者 固局於氣而各爲一理 以理之本體言 則雖在枯木死灰 而其本體之渾然者 固自若也 是故 枯木死灰之氣 非生木活火之氣 而枯木死灰之理 卽生木活火之理也 惟其理之乘氣而局於一物 故朱子曰 理絕不同 惟其理之雖局於氣 而本體自如 故朱子曰 理自理氣自氣 不相挾雜 局於物者 氣之局也 理自理 不相挾雜者 理之通也 今兄只見理之零零碎碎者 局於氣而各爲一理 不見渾然一體之理 雖在於氣 而無所不通 其於一貫之旨 何翅隔重關複嶺哉 荀揚徒見零碎之理各在一物 而不見本體 故有性惡善惡混之說 孟子只舉本體而不及乘氣之說 故不能折服告子 故曰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二之則不是 今兄所見 只論氣而不論性 陷於荀揚矣 與其不明 曷若不備之爲愈乎 道理難看 最忌執著一邊 見此言而猶不合 則姑且各尊所知 不復論辨 以待積功後 更辨如何耳 ”

- 20) 李瀾, 『星湖僊說』 卷19, 經史門, 「性善」, “性之善惡 孟荀以來 人有瞭然爲疑 夫孟子性善 言必稱堯舜 此一句可以判訟 湯武反之者 猶疑夫性 有未盡善 堯舜性之則 非勉強也 不勉而善 故知其本善也 人生而有欲 隨地便飢 這飢也 是人心之合有者 不待道心之節制 而何嘗有不善.”

고, 초목은 생명은 있어도 지각이 없으며, 금수는 지각은 있어도 의리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기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고 또 의리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前聖이 발명하지 못한 말을 발명한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에 큰 도움이 되겠다. 지각이 있는 것은 氣에 속하고, 의리가 있는 것은 理에 속한다. 이 의리가 있다는 말도 역시 지각 밖이 아니고 다만 지각이 있게 됨은 形氣에서 생기는 人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비록 이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문득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이치대로 하기 때문에 소위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즉 ‘人心’이니 ‘道心’이니 하는 말과 같은데 정밀하고 해박하게 말해서 다시 유감이 없게 하였으니 마음에 깨달은 것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²¹⁾라고 평하였다. 星湖는 순자의 학문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 시대의 성인들도 언급하지 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해명했다고 하며 순자의 王制편에 대해서만은 극찬을 하였고 독자적인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星湖도 성악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며 “성악론은 賢者로서 잘못이다.”²²⁾라고 하고 있다. 星湖는 「荀子解蔽篇」에서도 순자의 人心道心說을 비판하고 人性이 물욕에 가려진 것을 주로 다루었다.²³⁾ 순자는 유가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제자백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그 학설들을 유가적 견지에서 수합하였다. 성호는 순자의 이러한 사상을 주자학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자신의 학설을 들어 비평하였다.

星湖는 순자가 언급한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라고 하고, “하늘이 보고 듣기를 우리 백성을 통해 한다.”라고 하였으니, 마음을 논한 설은

21) 李瀼, 『星湖僊說』 卷19, 經史門, 「荀子」, “又王制篇云 水火有氣 而無生草木有生 而無知禽獸 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 有知亦且有義 故最爲天下之貴也 此發前未發於心術之學 大益有知 屬氣有義 屬理其有義 亦非知覺之外 而當其只有知覺時不過形氣之心 雖如此而却舍已 從理所謂有義 便是人心道心之說 而精窮該學 無復遺憾 非有得於心能然乎”

22) 李瀼, 『星湖僊說』 卷19, 經史門, 「荀子」, “性惡之論 賢者之失也.”

23) 李瀼, 『星湖僊說』 卷30, 詩文門, 「荀子解蔽篇」. 참조.

이것으로 극진하다 하겠다. 순씨의 이런 설은 밝혀 줄 만하지만, 이로써 性惡說이나 禮僞說의 잘못된 논의까지 아울러 덮어 주는 것은 부당하다.²⁴⁾라고 하였다.

대체로 순자의 성악설은 조선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燕巖 朴趾源은 “예로부터 性을 말한 사람 중에 性을 氣로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告子が ‘生’이라 이른 것과, 荀子が ‘惡’이라 이른 것, 揚子が ‘混’이라 이른 것, 韓子が ‘三品’이라 이른 것, 그리고 佛氏의 ‘作用’이라 이른 것이 모두 기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性은 아니다.”²⁵⁾라고 하였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은 性을 氣로서 이해하는 다양한 인식론을 펴면서 우리 유가에서 말하는 성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순자의 성악설은 유교에서 말하는 본연의 성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보았다.

그보다 앞서 寒水齋 權尙夏(1641-1721)는 “氣만 논하고 性을 논하지 않았다고 함은 荀子와 楊子를 가리킨 것이요,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았다고 함은 孟子를 가리킨 것이다.”²⁶⁾라고 하여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양비론으로 비평하였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본성에 대한 것을 네 수의 시로 읊었다. 그 중에 둘째 수는 다음과 같다.

從惡如崩勢固然 악을 따르면 무너지는 것은 형세가 그러하고
可善可惡又微權 선하고 악한 것은 미세한 차이인데

24) 李瀾, 『星湖全集』 卷54, 題跋, 「跋荀子」, “故曰人者天地之心也 曰天視聽自我民也 論心之說 於斯盡之矣 如荀氏此說 可以表出 不當以性惡禮僞之謬戾而並掩之也”
25) 朴趾源, 『燕巖集』 卷2(煙湘閣選本), 書, 「答任亨五論原道書」, “故古來言性者 莫不認氣 告子之謂生也 荀子之謂惡也 楊子之謂混也 韓子之謂三品也 佛氏之謂作用也 皆氣也 非吾所謂性也”
26) 權尙夏, 『寒水齋先生文集』, 附錄, 語錄, 門人, 沈潮 항목. 참조.

一勢一權看作性 하나의 형세와 차이를 본성으로 간주하고
 荀揚於此媿前賢 순자가 이것을 드러내어 선현을 욕되게 하였네²⁷⁾

이 시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학설이 맹자를 비롯한 유가의 선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산은 또 경연에서 임금에게 “불행하게도 맹자를 훼손하는 의론이 荀卿의 『荀子·非十二子』편에서부터 시작되어 쪼아대고 깨물고 하면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성인의 학문이 가려지고 이단의 학설이 횡행하니 맹자의 도를 천양하는 것이 급한데, 전하의 물음이 때마침 미치시니, 신이 어찌 감히 분석하여 대담해 올리지 않겠습니까.”²⁸⁾라고 하였다. 순자의 성악설은 조선에서는 이단적인 경향으로 고착화 되고 있었다.

2. 순자의 경세치용의 학설에 대한 조선의 반응

조선 선비들은 순자의 경세사상을 수용하여 “『荀子』, 「王制」편의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라고 하는 부분을 자주 인용하였다. 또 『荀子』, 「臣道」편의 “안으로 백성을 통일시키기에 부족하고, 밖으로 난리를 막기에 부족하며, 백성이 친하지 않고, 제후가 믿지 않는데도 교묘하고 재빠르게 번지르르한 말로 윗사람에게 총애를 잘 취하는 자를 태신이라고 한다.”라고 한 구절을 자주 인용하였다.

荀子は 그의 「議兵」편에서 “愛民者強 不愛民者弱”이라고 하여 그의 용병술에 애민사상이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순자의 경세 사상은 탁월한 데가 있어 보인다.

『高麗史』에는 “여름 4월에 가뭄이 심하므로 法駕를 갖추고 백관을 거

27)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7, 詩集, 字義詩, 「性字四首」 第二首.

28)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8, 對策, 「孟子策」, “不幸誹毀之論 始作於荀卿子非十二之說 而啄之嚙之者 代有紹述 今聖學藜莽 異說縱橫 孟子之道 急於闡揚而清問適及 臣敢不披瀝而對揚哉”

느리고 南郊에 나가서 두 번 祈雨祭를 지내고, 六事로써 자책하기를, “정령이 한결같지 않았던가. 백성이 그 직을 잃었음인가. 궁궐이 장엄하였던가. 총애하는 여자의 간청함이 많았던가. 뇌물 꾸러미가 나돌았던가. 참소하는 사람이 성했던가.” 하고 童男童女 각 8명을 춤추게 하여 비 오기를 빌었다. 正殿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풍악을 철폐하고 바깥에 앉아서 정무를 보았다. 골목과 저자에는 사람들의 모자 쓰는 것과 부채질하는 것을 금하고, 또 종묘·사직·산천에 기도하였다.”²⁹⁾라는 조목이 있다. 여기에 등장되는 여섯 가지를 반성하는 것은 순자에 있는 기록이다. 이 이후 조선시대까지 기우제에는 이 사실이 빠지지 않고 인용되고 있다. 이처럼 순자의 사상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牧隱 李穡(1328-1396)은 순자의 학설 「公生明」편을 다음과 같이 시로써 읊었다.

私意名人欲	사사로운 뜻을 일러 人慾이라 하나니
忘私理即明	사심을 잊으면 이치가 곧 밝아진다
自然無畛域	자연스레 구역이 없어지게 한다면
譬則是權衡	비유하면 저울추와 같다고나 할까
觸石水聲急	바윗돌에 부딪치면 물소리가 급해지고
隨風雲影輕	바람이 불어주면 구름은 가볍다
虛心能泛應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대응하면
世道本升平	세상도 저절로 태평 시대가 되겠지 ³⁰⁾

이 시의 제목은 ‘公生明’이다. 이것은 『荀子·不苟』에 나오는 말로, 공

29) 『高麗史節要』卷6, 「宣宗思孝大王」, [戊辰五年 宋 元祐三年, 遼 大安四年], “夏四月, 以旱甚, 備法駕, 率百僚, 如南郊, 再雩, 以六事, 自責曰, 政不一歟, 民失職歟, 宮室崇歟, 婦謁盛歟, 苞苴行歟, 讒夫昌歟, 使童男童女各八人, 且舞而呼雩, 避正殿, 減膳徹樂, 露坐聽政, 巷市, 禁人戴帽揮扇, 又禱于宗廟, 社稷, 山川”

30) 李穡, 『牧隱詩稿』卷28, 詩, 「公生明」.

정하면 이치가 분명해진다는 말로 公明正大한 經世觀을 강조한 의미이다. 옛날에는 이 세 글자를 돌에 새겨 관청의 정면에 세워 놓고 관원들을 경계시켰다고 한다. 牧隱 李穡(1328-1396)은 순자의 공생명의 정치사상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자기시대의 당대 정치상황과 비교하여 경세치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退溪 李滉(1501-1570) 그의 「戊辰六條疏」에서 “荀자가 말하기를, ‘임금은 그릇과 같으니 그릇이 모나면 물도 모나고, 임금은 꽃대와 같으니 꽃대가 바르면 그림자도 곧다.’ 하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보잘 것 없는 신의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생각으로는 인심을 방황하고 미혹되게 하는 학설에 대하여 특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동방 이단의 가장 심한 폐단은 불교이니, 고려는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我朝의 융성한 다스림으로도 오히려 그 뿌리를 끊지 못하여 때때로 틈타서 치성해지니, 비록 선왕께서 곧바로 그 그릇 것을 깨달으시고 빨리 씻어 버리셨지만 그 여과와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³¹⁾라고 하고 있다.

退溪는 순자의 말을 인용하여 왕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이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 글 속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 퇴계는 성악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순자를 이단과는 다른 긍정적인 儒家의 학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白沙 李恒福(1556-1618)은 正字 崔有海(1587-1641)에게 준 편지에서 “荀자가 이르기를, “四民의 業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姦民이라 하는 것이니, 간민이 생기지 않아야만 王道가 이에 이루어진다.” 하였네. 그러므로 周公의 법에는, 흰 관에 검은 테를 두르고 다섯 치의 끈을 드리운 것은

31)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6, 疏, 「戊辰六條疏」, “荀子曰 君者 盂也 盂方則水方 君者 表也 表正則影直 豈不信哉 雖然 微臣之私憂過計 更於人心岐惑之說 特有感焉 臣伏見東方異端之害 佛氏爲甚 而高麗氏以至於亡國 雖以我朝之盛治 猶未能絕其根柢 往往投時而熾漫 雖賴先王旋覺其非 而汎掃去之 餘波遺燼 尙有存者”

게을리 노는 자의 차림으로 삼아서, 끝내 鄉黨에 끼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의 풍습으로 본다면 어떻다고 하겠는가? 세상의 태만한 자들은 농지거리나 하며 노는 것을 고상한 운치로 여기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비속한 것으로 여기는데, 만일 농사짓는 일을 비속한 業이라고 말한다면, 虞舜·長沮·桀溺·董邵南 같은 이들이 먼저 그 일을 하였고, 工業을 천한 일이라고 한다면 輪扁이 먼저 하였으며, 商業을 천박한 기예라고 한다면 管仲·膠鬲 같은 이들이 먼저 하였다. 그러니 가령 순 임금의 본받을 것이 없다면 그만이었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무슨 道를 따른단 말인가? 다만 그 가운데서 義利의 관계를 세심하게 대처하여 중도를 헤아려서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군자인 것이네. 옛날에 어찌 일찍이 놓고먹는 자들을 귀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³²⁾라고 하였다.

白沙 李恒福은 순자의 경세치용의 학설을 인용하여 당대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순자의 실천유학의 경세치용 학설은 조선의 선비 사회에서 인용된 흔적이 발견된다. 순자의 이러한 탁견은 孔孟을 보충하는 위대한 학자로 평을 받았다.

조선의 朝廷에서도 순자를 인용한 적이 있다. 宣祖(1552-1608, 재위: 1567-1608)는 栗谷 李珥가 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자 “『書經』에 ‘용병을 잘 다스리라.[克詰戎兵]’ 하였고, 춘추 시대 魯나라 成公 때의 인물인 劉子是 ‘나라의 큰일은 제사지내는 것과 전쟁을 치루는 일이다.’ 하였고, 荀子是 ‘병력의 규모를 크게 하면 천하를 제압하고, 적게 하면 이웃 나라를 제어한다.’ 하였으니, 진실로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소홀히 할 수

32) 李恒福, 『白沙先生集』 卷2, 書, 「與崔正字有海書」, “荀子曰 不由四民之業者 是謂姦民 姦民不生 王道乃成 故周公之法 以縞冠玄武垂綬五寸 爲惰遊者之飾 終不得齒於鄉黨 以今觀之 則爲何如也 世之惰慢者 以譁浪爲高致 以勤事爲鄙俗 若曰農乃鄙業 則虞舜 沮, 溺, 董邵南輩 先爲之矣 工乃賤事 則有輪扁 商乃薄技 則有管仲 膠鬲 使舜不足法則已 不然 今之爲說者 遵何道哉 第於其中 審處義利 酌中而不失焉者 斯爲君子 古何嘗以遊手遊食者爲貴也”

없는 일이다. ‘경은 노력하여 병을 조리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라. 그렇게 해도 일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하며 율곡의 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³³⁾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조정의 경연에서도 순자를 강하였으며 순자의 병사에 대한 논리를 들어 신하인 율곡에게 하명하는 장면에서 순자의 학설이 經世致用에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栗谷은 “『荀子』에 말하기를, 몸을 닦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나라를 닦는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임금은 소반이니, 소반이 둥글면 물이 둥글다. 임금은 사발이니, 사발이 모나면 물이 모나다. 임금은 근원이니,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것이 맑고,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것이 탁하다.”라고 하였다.³⁴⁾ 율곡은 임금을 판단하는 자료로 순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완 설명하고 있다.

또,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義와 利를 판별하는 것에 대하여 『荀子』의 “義가 利를 이기면 治世가 되고, 利가 義를 이기면 난세가 된다. 임금이 의를 중히 여기면 의가 利를 이기고, 임금이 利를 중히 여기면 이가 의를 이긴다. 그러므로 천자는 많고 적은 것을 말하지 않고, 제후는 이롭고 해로운 것을 말하지 않으며, 대부는 얻고 잃는 것을 말하지 않고, 士는 財貨를 유통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다 利를 부끄럽게 여겨 백성들과 사업을 다투지 않고,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쌓아 두고 보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다.”³⁵⁾라고 한 구절을 들어 인용하

33) 『宣祖修訂實錄』, 16年 癸未(1583, 萬曆 11) 1月 1日(乙卯), “『書』曰 ‘克詰戎兵’ 劉子曰: ‘國之大事, 在祀與戎.’ 荀子曰: ‘兵大制則制天下; 小制則治隣國’ 誠有國之不可忽也 卿其努力 調病行公 亦可以治事也’ 上既不許遞職”

34) 李珣, 『栗谷先生全書』 卷24, 「聖學輯要」6, 「爲政第四」, “荀子 荀況所著 曰聞修身矣 而未聞修國也 君者 槃也 槃圓而水圓 君者 盂也 盂方而水方 君者 源也 源清則流清 源濁則流濁”

35) 李珣, 『栗谷先生全書』 卷25, 「聖學輯要」7, “義勝利者 爲治世 利克義者 爲亂世 上重義則義克利 上重利則利克義 故天子不言多少 諸侯不言利害 大夫不言得喪 士不通財貨 皆羞利而不與民爭業 樂分施而恥積藏 荀子”

였다.

이렇게 볼 때 栗谷은 순자의 학설을 긍정 하면서도 주자의 성리학설을 의식하여 성선설에 대하여서는 비판의 자세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正祖(1752-1800, 재위: 1776-1800)는 유교를 정치사상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을 파악하여 “儒道로 백성을 얻는다는 것은 『周禮』에 기술된 설이고, 유도를 행하면 富大하여진다는 것은 荀卿의 학설이다. 儒者가 국가에 관계됨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냐?”³⁶⁾라고 하고 있다. 순자의 학설은 국가를 富大하게 하는 실천유학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正祖는 周易의 井卦를 경연에서 들으며 “荀子が 말하기를, “不足한 것에 대해서는 온 세상의 공통된 걱정이다. 그러나 진실로 백성을 위로하고 서로 돕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근심할 자는 없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군자가 井卦에서 象을 취한 것은 우물의 덕을 본받고 우물처럼 베풀을 행하고자 함이다. 우물의 덕과 우물의 베풀은 정말 그 부족함을 채워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선대의 왕들이 우물의 법칙을 보고 백성의 부족함을 채워 주는 정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모두 자세히 말해 줄 수 있겠는가? (중략) 생원 尹象烈이 “荀卿이 병법을 논함에 있어서는 附民을 요체로 삼고 湯武의 仁義를 중시하였으며, 將帥를 논함에 있어서는 六術, 五權, 三至를 두고 끝에 공경으로 근본을 삼았다. 그 말을 보면 순수하여 異端과 雜霸의 술수에 흐르지 않고 있다.”³⁷⁾라고 대답하였다. 순자의 경세사상은 조선사회에서 순수하고

36)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3, 「儒」, “以儒道而得民 周禮著說 行儒道則富大 荀卿立言”

37) 正祖, 『弘齋全書』 卷110, 「經史講義」47, 綱目[一](辛亥館學儒生對), [秦昭襄王], “荀卿論兵 以附民爲要 而歸重於湯武之仁義 論爲將 有六術五權三至 未以恭敬爲本 觀其言 可謂粹然不流於異端雜霸之術矣 然而其論學問源頭則乃有性惡之謬何也 處攻戰之時 而談仁義之道 荀與孟同也 今其書乃極詆子思 孟子有若冰炭鑿枘之不相合者又何歟 韓子以荀子爲大醇小疵 其所謂醇者指何處 疵者謂何事耶 史記稱其推儒墨道德之行 而終曰李斯爲其弟子 斯之所以治秦 果是道歟 生員尹象烈對 蘇軾論荀卿曰學聖人者豈必其言之云爾 亦觀其意之所嚮 嘗觀荀子書三十餘篇 反覆仁義之說 而無一實踐 性惡之說 襲謬杞柳 詆斥思孟

긍정적인 유가류로 수용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된다.

荀子は 그의 「議兵」편에서 ‘愛民者強 不愛民者弱’이라고 하여 그의 용병술을 피력하였다. 그의 경제치용의 철학에는 애민사상이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조선 학자들이 수용한 순자의 禮論

戰國尙辯士	전국 시대엔 변사를 존중하여
各用縱橫稱	각기 합종연횡을 주장했건만
荀卿當此時	순경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有口若緘滕	입이 있어도 봉한 듯 다물고
著書空萬言	부질없이 만언의 책 저술하여
禮義以明微	예의로 밝은 징험을 삼았구나
賢者未必貴	현자도 반드시 존귀한 것은 아니니
寂寞死蘭陵	적막하게 난릉에서 죽고 말았네 ³⁸⁾

李荇(1478-1534)은 순자를 읽고 그 독후감을 시로 형상화 하였다. 용재는 순자의 대표적인 정치사상을 禮敎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시대 변사들인 소진·장의 등은 합종연횡을 위하여 분주히 다녔지만 순자는 이런 시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질없이 만권 책을 저술하였지만 예의로써 밝게 증명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시에서는 순자의 예악사상은 그를 현자로 숭상하게 했지만 적막하게 생을 마쳤다는 안타까움이 녹아 있다. 순자의 예악사상 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荀子』, 「勸學」에, “예법과 예의를 말하지 않으면서 『詩經』과 『書經』을 공부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손가락을 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재고 창

殆若冰炭 雖謂之醇處小疵處大可也 王遵巖以爲李斯壞先王之法 皆出於荀卿 由此觀之 荀卿之學可知耳”

38) 李荇, 『容齋先生集』 卷6, [海島錄 正德丙寅春二月 赴巨濟以後作], 「讀荀子」.

을 가지고 곡식을 쟁으며, 송곳을 가지고 병 속의 밥을 먹는 것과 같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하였다. 荀子는 또, “굽은 나무는 반드시 바른 뒤에야 곧아지고, 둔한 쇠는 반드시 갈아야 예리하게 된다. 지금 사람의 性은 반드시 師法을 기다린 뒤에야 바르고, 禮義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진다.” 하였다. 또 그는 “사람은 태어나서 무리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무리를 짓는 데 아래위가 없으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세상 어떤 사물에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잠시라도 예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여 혼란한 전국시대에 알맞은 치도로 예론을 강조하였다.

星湖 李瀼은 “荀卿은 大儒이다. 그의 禮論을 褚少孫은 뽑아서 禮書로 만들었고, 戴政君은 줄여서 記를 만들었다. 모두 진진한 理趣가 마치 큰 강물이 쏟아져 흐르면 온갖 파란이 전후로 일렁이는 모습을 다 형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³⁹⁾고 하였다.

星湖는 순자를 대유라고 했고 그의 학설은 마치 장강 같아서 이취가 넘친다고 했다. 순자의 예치사상이 중원에서 송상되고 있는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순자의 학설 중에 대표적인 예론은 경세의 실용 학문으로 조선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白湖 尹鑄(1617-1680)는 “『詩經』 전체의 작품이 모두 禮義에 그치고 정치에 관계가 있어 천하에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荀子』, 「勸學」篇에 말하기를 “시라는 것은 中聲에 그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風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고, 小雅와 大雅가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며, 頌의 지극함인 것이다.”⁴⁰⁾라고 하여 순자의 예치 사상과 詩經의 상관 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순자는 시경을 인용하여 경세관을 피력한 부분이 많다. 순자는 그의 예론에서 『詩經·清廟』편을 거론했다.

39) 李瀼, 『星湖僂說』 卷19, 經史門, 「荀子」, “荀卿大儒也 禮論一篇 褚少孫採爲 禮書 戴政君節爲記 皆津津理趣 如長江一瀉 前派後瀾 渺漫不可窮詰也.”

40) 尹鑄, 『白湖全書』 卷41, 雜著, 讀書記, 「古詩經攷」. 참조.

於穆清廟	아아, 공경스럽고 깨끗한 묘당
肅雝顯相	경건하고 온화한 현달의 祭司長들
濟濟多士	아름답고 훌륭한 선비들
秉文之德	문왕의 덕을 받들어 모시네
對越在天	하늘에 위대한 신령을 모시고자
駿奔走在廟	묘당 안을 분주히 오고 간다
不顯不承	그 덕을 크게 밝히고 뜻을 이어받으니
無射於人斯	백성들 모두가 우러러 받들도다 ⁴¹⁾

『荀子·禮論』에 “清廟의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르면 세 사람이 탄식한다[清廟之歌 一倡而三歎也.]”라고 하여, 예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순자의 예악사상은 조선 선비들에게 의미 깊게 다가왔다.

세종은 악장 중에서 북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荀子是 말하기를, “북은 모든 樂의 君王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제 雅樂의 大鼓는 이 북을 모방하여 만든 것인 듯하나, 그 형상과 제도는 周官의 鞀人之說과는 합하지 않으며, 또 그것은 다만 하나만을 만들어서 한 모퉁이에 치우쳐 놓고, 또 매달아 놓지 않으니,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 갖추어 만들기를 모두 周나라 제도와 같이 하여 쓰게 하소서. 이제 軒懸에 설치한 雷鼓·靈鼓·路鼓를 살펴보면 모두 소리가 나지 않으며, 지금 쓰는 大鼓는 송나라 사람이 散鼓라고 하는 것인데, 그 후에 鼗鼓로써 대신하였사오니, 송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鼗鼓 하나를 쓰게 하소서.”⁴²⁾ 하였다.

순자의 樂論은 조선에서도 많이 수용되고 있었다. 세종은 조선의 예

41) 清廟, 『詩經·周頌·清廟之什』.

42) 『朝鮮王朝實錄』, 세종12년, 경술(1430, 선덕 5) 2월 19일(경인), “堦又云: “按『周禮』『春官』云: ‘鼓人以鼗鼓鼓金奏’(金奏 擊編鍾也) 『周禮』圖及陳氏禮書樂書內圖懸鼓之狀 以爲懸鼓 卽鼗鼓也(以其進樂故謂之鼗鼓 以其懸設故謂之懸鼓) 陳陽因謂: ‘宮懸設之四隅, 軒懸設之三位’ 荀子以爲: ‘衆樂之君’ 今雅樂大鼓 似倣此鼓爲之 然其形制 與『周官』『鞀人』之說不合 且只作一件 偏置一隅, 又不懸設 非制也 願令備造 一如周制用之” 今詳軒懸所設雷鼓靈鼓路鼓 皆不能聲 今之所用大鼓 宋人以爲散鼓 其後代以鼗鼓 乞依宋制用鼗鼓一”

악을 정비하면서 순자의 악론을 거론하고 있다. 순자의 禮論과 樂論은 예악사상의 근본으로 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禮樂刑政은 순자사상의 대표적인 학설이다.

權尙夏는 “‘苟難’은 『荀子』의 「不苟篇」에서 나온 말이니, 거기에 이르기를 “군자는 행실을 거짓으로 어렵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을 거짓으로 정밀하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름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오직 사리에 맞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돌을 가슴에 품고 河水로 몸을 던지는 것은 행하기 어려운 일인데 申屠狄은 그것을 해냈다. 하지만 군자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禮의 중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네.”⁴³⁾라고 하였다. 신도적은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 분개한 나머지 돌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하수에 빠져 죽었다. 이 사실을 들어 순자의 예론을 연결시키고 있다.

順菴 安鼎福(1712-1791)은 또 『天學問答』에서 “마테오리치가 말하기를, ‘영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生魂·覺魂·靈魂이 그것이다. 초목은 생혼만 있고 각혼과 영혼은 없으며, 금수는 생혼과 각혼은 있으나 영혼은 없는데, 사람에게서는 생혼·각혼·영혼이 다 있다. 생혼과 각혼은 形質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의존하던 형질이 없어지면 생혼과 각혼이 함께 없어지지만, 영혼은 형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하였는데, 이 설은 어떻습니까?”하므로, 대답하기를, “우리 중국에도 그런 설이 있다. 『荀子』에, ‘물이나 불은 기운은 있지만 생명은 없고, 초목은 생명은 있지만 지각은 없으며, 금수는 지각은 있지만 의리는 없다. 그런데 사람은 기운·생명·지각·의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된 것이다.’

43) 權尙夏, 『寒水齋先生文集』 卷7, 書, 「答閔聖猷」, “苟難 出荀子不苟篇 曰君子行不貴苟難 說不貴苟察 名不貴苟傳 惟其當之爲貴 負石而投河 是行之難爲者而申屠狄能之 然而君子不貴者 非禮之中也云云 申屠狄恨道不行 發憤而負石自沈于河 彼此交盡 彼指上章與後篇與三仁夷齊之事 此卽此章也 彼此交盡 謂盡知彼章與此章所論仁字之義也”

하였는데, 이 말을 眞西山이 『性理大全』에 表出하였다. 서산의 말은 이것과 대체로 같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석씨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 유자가 말하지 않는 바이다.”⁴⁴⁾라고 하였다.

順菴은 서구의 천주교 논리를 순자의 설과 비교하여 설파하였다. 순자의 인간 존중 사상을 꿰뚫고 있는 조선의 선비들은 서구의 천주교 논리에 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이고 유교경전의 글쓰기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유교논리의 전범이 되고 있었다.

순자의 禮樂설은 천지의 순조로운 조화와 만물의 화육을 관장하고 가정과 국가를 화목하게 하는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사상이었다.

4. 순자는 조선 선비들의 문장전범

荀子の 문장은 논리적이다. 그의 언설은 특히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문장이 유려하고 문장의 호흡이 자유롭다. 그의 설득력 있는 논리는 기세가 있고 자연의 이치를 꿰뚫고 있어서 문장의 전범으로 활용되었다. 그의 비유법은 일상에서부터 가지고와서 쉬운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비유가 명확하고 명증성이 높아서 비유의 꽃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시가 속에 순자의 문구를 전고로 만든 시어들이 수두룩하고 산문이나 문장에 순자의 문구가 인용되는 것이 허다하게 드러난다.

順菴 安鼎福(1712-1791)은 “제가 일찍이 『荀子』의 仲尼篇의 끝부분 ‘持寵處位章’을 읽었는데 말투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人情을 잘 묘

44)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17, 雜著, 「天學問答」, “或曰 利瑪竇言魂有三 生魂覺魂靈魂 草木之魂 有生無覺無靈 禽獸之魂 有生有覺無靈 人之魂 有生有覺有靈 生覺二魂 從質而出 所依者盡 則生覺俱盡 靈魂非出於質 雖人死而不滅自在也 此說何如 曰 吾中國亦有之 荀子曰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有義 故最爲天下貴也 此語眞西山表出於性理大全中 西土之言 與此大同 而但靈魂不死之言 與釋氏無異 吾儒之所不道也”

사하였습니다. 대체로 春秋戰國시대 말엽에 벼슬한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의 화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편을 저술하여 교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대께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이는 하찮게 여길 글이 아닙니다.”⁴⁵⁾라고 하였다. 순암은 순자의 중니편을 읽고 감동하였다. 이렇듯 순자의 문장력에 대한 논의가 조선시대에는 자주 거론되었으며 순자의 문장을 모범으로 문장력을 배우는 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澤堂 李植은 글을 지을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들 나열하면서 “『시경』과 『서경』의 正文 및 『맹자』의 정문은 물론이요, 『논어』와 『중용』과 『대학』은 傳註까지도 아울러서 우선 숙독을 하고 종신토록 복습해야 할 것이니, 이 글들이야말로 義理의 본원과 관계되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막히게 해서 안 될 것이다. 荀子와 揚雄의 문장은 바로 韓愈의 문장이 나온 근원이라고 할 것이니, 수십 편을 뽑아서 읽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주역』의 繫辭傳과 『춘추』 3傳 중의 『춘추좌전』과 『예기』 등의 글 역시 여력이 있으면 숙독을 하여 소득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유의 문장은 문장의 正宗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그 글을 讀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7,80수를 뽑아서 읽되 만약 취미를 느끼게 되거든 그대로 평생의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말세의 학풍으로 볼 때 得力을 하는 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치 시에 있어서의 杜詩처럼 전적으로 한유의 문장에 귀의하라고는 할 수가 없다.”⁴⁶⁾라고 하였다. 한유의 문장이 나온 근원은 순자라고 하였으며 순자의 문장을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45)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9, 書, 「答鄭子尙書(辛丑)」, “嘗讀荀子仲尼篇末持寵處位章 語習似涉駁雜而曲盡人情 蓋戰國之末 從宦者多罹世禍 故作此以垂訓 執事試取以觀之 此是不可少之文字也”

46)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14, 雜著, 「作文模範」, “詩書正文 孟子正文 論語 庸學并傳註 爲先熟讀 終身溫習 此義理本源 不可一日塞也 荀, 揚 乃韓文之所從出 數十篇抄讀 此外易繫辭 春秋三傳中左傳 禮記等書 有餘力則熟觀採穫 韓文 文之宗 不可不先讀 七八十首抄讀 若得臭味 仍以爲終身模範可也 然末學之得力者少 不可專爲歸宿 如詩之杜詩也”

조선 후기에 오면서 순자의 문장은 논리적이고 비유적이어서 문장의 전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순자는 “다섯 가지 채색은 靑·黃·赤·白·黑을 가리킨다. 文章이란 말에는 원래 무늬나 文彩라는 뜻이 있다. 『荀子·賦』에 “다섯 가지 채색을 갖추어야 문장이 이루어진다.[五采備而成文]” 하였다. 순자의 문장에는 논리적인 문예미학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정조는, “屈原이 離騷經을 짓고 荀況이 五賦를 지었는바, 부라는 이름의 문체는 실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⁴⁷⁾라고 하였다. 순자는 오부를 지어 禮, 知, 雲, 蠶, 箴을 읊었으며 이것은 시와 노래의 형식이며 순자의 문학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장이다. 순자는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학자였다.

IV. 결론

이상으로 순자의 사상이 조선 선비들에게 수용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순자는 조나라 사람으로 전국시대 학문의 요람이었던 직하학사의 종장이었다.

그의 학문적 경향은 유가의 우아한 선비로서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었다. 그의 학설은 순수했으며 인간을 존중하고 인의를 숭상하는 학문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는 儒家, 墨家, 道家가 행한 성취와 실패를 고찰한 후 그것들을 차례로 정리하여 종합하였으며 그의 학설은 性惡說과 禮教을 중시했으며 경세치용의 실천유학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성리학이 팽배한 조선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수용된 면도 없지 않았다. 학자들은 순자를 필독서로 정해서 읽었고 학생들의 학습요목에 순자가 들어 있기도 하였다. 한국의 유명한 유가학자들의 문집에는 순자의 학설을 거론한 것들이 무수히 발견된다. 순자의 위대한 사상이 한국의 유교발전에 영향을 끼친

47) 正祖,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五, 「文學[五]」, “自屈原作離騷 荀況作五賦 賦之名體 實始於此”

것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은은 “유가의 우아한 선비”라 했고, 허균은 “맹자 이후 유가의 일인자”라고 했으며, 농암은 “유가에 공이 큰 학자”라고 했다. 성호는 “전현들에게서 볼 수 없는 분별력의 소유자”라고 하였고 정조 임금은 “유도를 행하여 부대하게 하는 경세가”라고 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크게 性惡說과 禮治사상으로 대별된다. 그의 경세사상과 문장력은 조선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 그의 성악설은 파란을 일으켰으며 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긍정적으로 이해한 그의 인성에 대한 이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예악사상은 혼란기를 안정시킬 정치논리로 유명하였으며 한국의 선비들에게는 유가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조선의 음악가들에게는 순자의 音樂論은 조선의 예악을 정비하는데 그 상상력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다양한 경세치용의 논리는 조선사회에 긍정적으로 이해되어 수없이 인용되었다. 그의 현란한 문장의 논리는 조선 선비들의 전범이 되기도 하였다.

戰國時代 혜성같이 나타난 儒家류의 破天荒. 맹자의 성선설에 반기를 들고 성악설을 주창한 유교 속에 이단이 된 문제야. 인간을 존중하고 실천유학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했던 위대한 사상가이자 인류의 참 스승이었던 순자!! 유가적 바탕위에 깨어있는 지성. 전국시대 유가 사상을 피력한 현란한 비유와 그 논리. 성악설을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휴머니스트. 禮敎를 바탕으로 전국시대의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경세가. 음악으로 천지만물의 조화와 인류를 교화하고자 했던 樂論의 대가 등으로 조선 선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순자의 사상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담론의 지평이 더욱 정치하고 심오하게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方勇·盛敏慧, 『荀子感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12.
(清) 王先謙 撰, 沈嘯寰·王星賢 整理, 『荀子集解』, 中華書局, 2012.
司馬遷, 『史記』

- 『고전국역총서 연행록선집 전12권』,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5.
『국역 谿谷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2002.
『국역 高麗史節要』,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77.
『국역 茶山詩文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4.
『국역 東國李相國全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79.
『국역 牧隱詩稿』,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2002.
『국역 白沙先生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8.
『국역 白湖全書』,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5.
『국역 宣祖修訂實錄』,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4.
『국역 惺所覆韻稿』,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1.
『국역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79.
『국역 順菴先生文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6.
『국역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2.
『국역 容齋先生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2004.
『국역 栗谷先生全書』,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66.
『국역 益齋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79.
『국역 朝鮮王朝實錄』,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4.
『국역 澤堂先生 別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7.
『국역 退溪先生文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77.
『국역 寒水齋先生文集』,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6.
『국역 弘齋全書』,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Shun-ja(荀子)' accommodate aspects in Joseon(朝鮮)
/ Shin Doo 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hun-ja' Accommodate aspects in. Shun-ja was famous for his the ethical view that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evil (性惡說). He is demonstrating how the acceptance of the doctrine of the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evil. Joseon is critical and It was almost heresy to go. but Some scholars affirm the hat. he was Disciple-back pressure of a Confucianist. His governing idea is Korean studies are accepted and his thoughts of administrating the state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 Korean studies are accepted.

His stance is that Joseon the acceptance. His doctrine of think much of propriety is accommodat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his ye-ag(禮樂)-doctrine.

However, some are not positive. His sentences are perverse examples of learning. His glaring analogy method and Coherent speech. Many scholars who want to learn. His thought is Korea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scholars. His doctrines are herded to Korean scholars. Shun-ja was a great thinker.

【Key words】 Shun-ja, a Confucianist, Joseon,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evil(性惡說), doctrine of ye-ag(禮樂說), governing idea

투고일 : 10월 31일, 심사일 : 11월 24일, 게재확정일 : 12월 9일
--

* A Professor of Andong National Univ. / ilovestudent@hanmail.net